

News & News

## “치과의사, 선행봉사에 활동적” 안 협회장, 김태홍 보건복지위 위원장 면담서 강조

안성모 협회장은 7월 10일 오전 국회를 방문, 김태홍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치협 정책방향의 큰 골격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대구·광주지역 치과의사들이 힘을 합쳐 소록도 진료에 나서고 영남 치과의사들이 호남 노인들에게 틀니 무료진료를 해주는 등 치과의사는 분명 의사들보다 활동적이고 비영리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문화·예술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치과의사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자신이 치협 명예회원이던 것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과의 친분을 먼저 밝히는 등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6대 국회 때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외국 치대출신 예비시험제 도입 ▲제1차 치과의료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시 건

인차 역할을 하는 등 당시 국회의원들 중에서 구강보건 마인드가 제일 뛰어난 선량으로 평가 받았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공로로 지난 5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명예회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성모 협회장은 “치협의 현 집행부도 국민과 함께 하는 치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정부의 의료분야 공공성 확대정책에서 치과부분이 빠져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또 “차상위 계층 노인 등 소득이 열악한 노인들의 저작권은 회복시켜줘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치과의사상 실현에 계속 나설 것임을 간접 피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장에 새로 취임함에 따라 상견례를 겸한 예방차원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저서 두 권을 안 협회장에게 선물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0분간 진행됐다.

News & News

##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 안성모 협회장 재선임

안성모 협회장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돼 앞으로 1년간 더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에 따라 치협이 다시 한번 보건의약계의 화합을 이끌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조율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6월 30일 메리어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안성모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앞으로는 위원장을 1년씩 윤번제로 6개의 의약계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맡기로 합의하고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 1대 위원장으로 이기택 고문이 선출된 후 2대·3대 정재규 명예회장을 거쳐 4대 안성모 협회장에 이르기까지 8년간 정부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계약에 있어서 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협의회 위원장과 관련 기존에는 호선제로 임기는 2년이었으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단체인 갈등이 심화되자 이같은 개선안을 마

련한 것이다.

안 협회장 다음에는 의협 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그 후로는 약사회, 한의협, 간협, 병협 회장이 맡게 된다.

회의에서는 또 2007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협상단을 치협, 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 병협 등 6개 단체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 방안에 대해 공단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여러 의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보건의약계의 화합을 이끌어가겠다”며 “의약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가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협회장은 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1월 15일 역사상 처음으로 공단과 협의회의 자율적인 환산지수 계약을 이뤄낸 바 있다.



## 고가레이저 과대광고 “발본색원”

### 법제위·윤리위 등 해당부서에 강력 조치 권고 /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일간지와 케이블TV 등에 고가의 치과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특정업체의 레이저 광고를 이용한 일간지 광고 등이 허위·과대 광고가 명백하다며 치협 법제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 해당 부서에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권고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고충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광고에 등장하는 해당 원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의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일반 회원들도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최근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일간지 등 광고에 대해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지부와 부산지부, 경남지부 등 전국 각지에서 해당원장과 업체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충위는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고가의 레이저에 대한 회원고충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5월 30일과 7월 6일 두 번에 걸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특히, 고충위는 위원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보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현재 시판중인 레이저 장비의 제조사 및 수입사, 판매가격,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마친 상태다.

고충위는 '무마취', '무통증', '필수기계' 등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를 통해 환자를 오도시키고 있으며, 이로인해 어쩔 수 없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회원들이 많고 과도한 가격도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충위는 또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레이저 구입시 일간지나 케이블 TV, 신문, 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해 주는 사례도 강하게 지적했다.

박건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증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원장까지 고발조치하게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충위의 모 위원은 “회원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신문지상에 발표된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검토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충위 간사인 양승욱 변호사도 “무통, 무마취 등의 광고 내용을 볼 때 최소한 과장은 된다”면서 “치협 윤리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의료광고특별심의위원회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식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1단계 조치”라면서 “해당 원장에 대한 징계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충위는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현안 사안인만큼 법제이사 등 주무이사를 만나 확실히 매듭을 짓기로 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레이저 장비뿐만 아니라 여타 장비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건배 위원장을 비롯해 김원식·양승욱 간사, 박영준·정창주·조용진·한성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백서발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조영식 기획이사·심현구 이사 선임

### 감염방지대책특위 위원장에 오세광 원장 위촉

조영식 남서울대학교 치위생과 교수와 심현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이 각각 기획이사와 신입이사에 선임됐다.

또 오세광 원장이 감염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치협은 7월 18일 치협 회관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날 결정했다.

이번 조 기획이사의 선임은 신호성 기획이사가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 심 이사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여자회원들이 치협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치협 집행부가 전격 수용함에 따라 신입이사로 영입된 것으로 앞으로 반상근이사 직책을 수행하게 된 전민용 치무이사의 치무 업무를 일정부분 분담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MBC PD수첩 방송 이후 긴급히 구성됐던 감염방지대책 T/F팀이 해체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업무를 위해 감염방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오 원장을 위원장, 심 신입이사를 간사에 위촉했다. 더불어 기타 위원 구성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최근 장마기간 동안에 계속된 집중호우와 관련 재해성금 및 수재의연금을 치협 차원에서 기탁키로 하고 각 지부별로 모금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장마 기간 동안의 계속된 집중호우로 크게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적지 않은 만큼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 줄 것”을 이사회에게 당부했다.